

성경 속의 여자들

네번째 유형

라헬 –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 잃어버려야 할 자

자매공과 – 12 월 13 일, 2025

- I. 창세기에 기록된 네 명의 주요 아내는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이다.
 - A.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언약의 약속이 육체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해서만 성취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B. 리브가, 이삭의 아내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예표하며, 그들은 아들에게 얻어져 그분의 신부와 배필이 되어 그분을 만족하게 한다.
 - C. 레아, 사랑받지 못한 아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셔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게 하셨다.
 - D. 라헬, 야곱이 사랑한 아내로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이며, 그녀는 우리의 천연적인 선택이 하나님의 경륜에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II. 라헬은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 아래 긴 여정에서 외롭고 고통받던 야곱을 주권적으로 만났다 (창. 28:15; 29:1-14).
 - A. 라헬은 아름다운 목자였으며 라반의 둘째 딸이었다. 야곱은 그녀를 만나 입을 맞추고 소리 내어 울었다 (창 29:11).
 - B. 그녀는 야곱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야곱은 눈이 멀고 어리석어졌다. 그는 라헬을 위해 라반을 칠년 동안 섬기기로 동의했다(창 29:18).

- C.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를 주었다(창 29:25).
- D. 라헬은 야곱의 선택과 기호에 따른 아내였지만, 레아는 하나님의 원칙과 뜻에 따른 아내였다(창 29:26-28).
- E. 하나님의 원칙에 따르면 한 남편에게 한 아내이므로,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합법적인 아내로 인정 하셨다. 레아는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막벨라의 동굴에 야곱 곁에 묻혔다 (창 49:29-31).
- F.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의 다루심이 따른다.

III.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자들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어, 그들 안에서 그분의 표현을 위한 변화 시키는 사역을 수행하신다 (롬 8:28-30).

- A. 라헬과 레아는 자녀를 낳음으로써 야곱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다.
- B. 레아와 그녀의 여종은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라헬은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였다.
- C. 라헬은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나도 아이를 낳게 해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창 30:1).
- D. 야곱은 태에 열매를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다(30:2). 몇년후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창 30:22)
 - 1. 라헬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고 이는 “그가 더하시리라” 또는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는 뜻이다. 이것은 라헬이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기를

소망했음을 나타낸다 (30:23-24).

2. 그녀의 소망은 6 년후 베냐민의 출생으로 성취 되었다(35:16-20).
3. 그러나 베냐민의 출산은 어려웠고 라헬의 생명을 앗아갔다.
4. 그녀는 죽어가며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내 고통의 아들)"라 불렀다
5.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오른손의 아들)" 으로 바꾸었다.
6. 라헬의 두 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 a. 베냐민은 "슬픔의 사람" (사 53:3) 이셨으나 결국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마 26:64).
 - b. 요셉, 예표의 연속으로 고난 받으셨으나 보좌에 높이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행 2:24, 33; 히 1:3).
 - c. 그리스도만큼 많은 고난 받은 이는 없으며, 그리스도만큼 높이 높이진 이도 없다.

IV. 배워야 할 교훈들:

- A. 라헬의 죽음은 야곱에게 매우 깊고 개인적인 다루심이었다.
 1.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과 마음의 소원이었던 라헬은 그에게서 빼앗겼다.
 2.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야곱이 자신의 천연적인 선택을 잃음으로써 아들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3. 베들레헴 길에 세워진 라헬의 무덤 기둥도 야곱 마음의 천연적인 선택의 죽음을 표시한다(35:19-20)

4. 우리도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의 체험후, 천연적인 선택을 잃고 베냐민, 곧 그리스도의 예표를 얻게 된다.
5. 라헬은 반드시 죽어야 베냐민이 태어난다.
6.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 a. 죽음 없이는 출생이 없다 (요 12:24),
 - b. 잃음 없이는 얻음이 없다 (빌 3:8, 10),
 - c.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고전 15:36).
- B. 어떤 의미에서 라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순교를 겪었다. 예레미야의 예언 후 수백 년이 지나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두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때, 라헬은 자신의 자손을 위해 울었다 (렘. 31:15; 마. 2:18).
- C.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사랑, 선택을 대가로 한다.
- D. 그러나 라헬의 상실은 야곱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다.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 한 것은 그가 확신과 믿음, 그리고 소망이 가득했음을 보여준다.
- E. 야곱은 주께서 안배하신 모든 것을 통해 점차 변화 되어 이스라엘이 되었다.
- F. 하나님은 우리가 천연적인 선택을 갖도록 허락하시지만, 우리의 방식과 때에 따라서는 아니다.
- G. 하나님은 잔인하지 않으시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 H.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배워야 한다.
- I. 변화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바뀌는 것이다. 이 변화가 충만에 이르면 성숙의 때가 온 것이다.

(참조: 각주가 포함된 회복역 성경과 창세기 라이프 스테디)